



독일 함부르크에서 서울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는 지도상 직선거리 2만Km, 5만 리의 먼 길을 자전거 하나로 달려왔다.
384일이 걸렸다.
작년 부처님 오신 날에 함부르크를 떠나 올 부처님 오신 날에 서울의 남대문에서 고단한 여정을 마감 지었다.
그리고 남해의 산사에 묻혀 지난 1년을 정돈하여 차곡차곡 마음속에 갈무리 했다.
행창 스님.
함부르크대학 인도학 티베트학연구소 연구원인 스님이 자전거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일까?
"2001년 5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독일 함부르크는 청명한 날씨.
1년간의 자전거 대륙횡단. 눈썹하나 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자전거로의 여정이지만,
출가자로서 단하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사' 한 벌을 챙겼다.
떠날 때 언제나 뒷정리를 말끔히 하여야함은 다시 돌아올 기약을 않겠다는 출가수행자의 의지이자 마음자세이다.
'가사' 한 벌이면 저 세상길을 떠날 충분한 준비인 것을."


◇세월을 초월해 그 자리를 지키는 길이 있는 한 여행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사진은 키르기스탄의 천산산맥에서 비단길로 이어지는 길.



◇행창스님의 여행경로. 함부르크→부다페스트→이스탄불→바쿠→사마르칸트→우루무치→서안→천진→서울

1년여동안 여행할 각오
알미늄제 산악용자전거에
가사·부품·카메라등 준비

지난해 초파일 함부르크 출발
자전거 핸들을 죽비로 삼아
현장·혜초의 '구도의 길' 달려

영하 30도 추위에 죽을 고비도
지난 5월19일 부처님 오신날
384일만에 조용히 서울에

행창스님의 자전거 여행기전문은
buddhanews.com에 있습니다.

행창 스님

"어여쁜 달마 찾아" 화두 자전거타고 5만리 정진

행창스님은 가사 한 벌을 자전거에 실으며 향후 1년간의 여행에 대한 각오를 했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마저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는 비장함으로.

알미늄제 산악용 자전거 한 대에 부품과 수리용 장비,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비상약품, 캠핑도구, 취사용구 등을 싣고 출발한 스님의 유라시아 대륙 자전거 횡단의 화두는 '어여쁜 달마를 찾아서'.

자전거 핸들을 죽비삼아 삼장법사 현장과 혜초 스님의 옛 구도 길을 달려오면서 행창스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람뿐인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웅장한 산맥들과 드넓은 평야, 강과 호수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무시로 만나는 여행의 동반자였다. 이스탄불을 지나면서 9.11테러 사건을 접했을 때는 자칫 여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지만 아프간 지역은 계획에 없었기에 그대로 전진해 나갔다.

스님은 이번 여행에서 죽음의 고비를 두 번 넘겼다. 불가리아의 해안 산악지역을 달리다가 기어가 고장 나면서 뒷바퀴 살 9개가 부러져 아찔한 순간을 넘겨야 했다. 자전거와 뒤엉켜 몇 바퀴를 뒹굴고 간신히 몸을 추스렸는데 다치지는 않았다. 부처님 가피였을 것이다. 준비해 간 바큐 살을 끼워 넣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자전거 여행자는 스스로 자전거 수리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다.

또 한 번의 고비는 해발 3천 미터 키르기스탄 산맥에서의 추위였다. 15일간을 영하 30도 안팎의 추위와 싸워야 했던 것. 한 마디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 뿐인 15일간의 사투를 마쳤을 때 스님은 "다시는 자전거 여행을 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는…"이라 외쳤다.

그러나 그런 다짐은 선방의 좌복이 아닌 자전거 안장을 택한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푸념에 불과했다. 죽을 고비야 수시로 닥쳐오는 여행자의 일상이지만 온사스님의 열반 비보를 들어야 했을 때는 수미산 같은 슬픔으로 베달을 밟아야 했다.

384일의 일정 가운데서 100여일은 야영을 했지만 지나 온 길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도시 지역에 닿으면 원고와 사진을 정리해 붓다뉴스(buddhanews.com)를 향해 송고해야 했던 것이다. 스님이 보낸 원고들은 월 2회 업데이트 되며 붓다뉴스의 인기 연재로 자리잡아 왔다.

카스피해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탔고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우루무치로 들어가는 비개방지역에서도 버스를 타야 했다. 북한을 경유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못해 천진에서 인천행 페리호를 탈 수 밖에 없었다. 이들 지역 외에는 모든 길을 자전거로 달렸다. 그렇게 두 바퀴를 굴려 서울의 남대문에 닿은 날은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붓다뉴스팀의 조촐한 이벤트 제안도 사양한 채 조용히 고국에 돌아 온 행창스님은 "여행은 끝났지만 아직 길은 남아 있다"는 한 마디로 1년간의 구도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pa.com

행창스님이 만난 달마들

행창스님의 자전거 여행 화두는 '어여쁜 달마를 찾아서'였다. 어여쁜 달마는 다름 아닌 사람.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반갑고 따뜻한 달마였다.

장정의 초반, 함께 자전거를 달리며 출정식 이벤트를 열어준 함부르크의 유학생들과 베를린에서 만난 닉 교수(브레멘 예술대학 멀티디자인 강의)의 따사로운 격려, 한국인 배낭여행자만을 재워 주는 프라하 파벨 아저씨의 넉넉한 인심은 여행 내내 큰 힘이 되었다. 비엔나에서 만난 금파화백은 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스님의 눈을 열어 주었고 부다페스트에서 만난 이광희씨(리스트 음악원서 10년째 지휘공부 중)는 귀를 열어주며 곤곤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만난 조선족 도(都)아저씨와 서울정 식당의 한국인 부부 역시 동족애와 사람의 냄새를 실컷 느끼게 해준 '보살'들이었다.

中央亞 거주 동포들 삶에서 뭉클한 감명
민박집 배낭여행자들 모두 따뜻한 친구

무엇보다 이번 여정에서 행창스님은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꿋꿋하게 살고있는 조선족들의 삶에서 감동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김치를 만들어 팔면 고려인 아줌마와 키르기스탄에서 만난 많은 카레스키(고려인)들이 엮어 내는 가슴 뭉클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키르기스탄의 국경에서는 뜻밖의 이국인 처녀가 비자문제를 해결해 주어 입국을 허락받기도 했고 수도 비쉬켁에서는 최행장(D은행 지점장)의 도움으로 까다로운 중국 비자를 쉽게 받을 수도 있었다. 민박집에서 만나는 배낭여행자들은 언제나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친구였고 일정이 맞으면 함께 유적지들을 탐방하는 동료가 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행창 스님은

행창스님은 범어사에서 벽파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일본 동양대학 인도철학과와 동경대학 대학원, 인도 마이솔 대학 대학원을 거쳐 델리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영국과 프랑스 유학을 거쳐 델리대학 연구원으로 활동 했으며 현재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인도학 티베트학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다. 1989년 인도와 네팔지역의 배낭여행을 시작으로 90년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91년 유럽일주 배낭여행을 했으며 92년에 일본 열도를 자전거로 여행했다.

일·印·영·불 유학마치고
함브르크大 객원연구원

네팔·유럽·아시아 배낭여행

94년부터 2년간은 아시아 대륙과 중국 티베트 지역을 배낭여행 했다. 87년에는 인도대륙을 오토바이로 왕복 횡단했으며 2000년에는 동유럽의 배낭여행을 마치고 중동지역을 자전거로 여행했다. 이 자전거 여행의 기록은 작년 〈자전거에 사막을 싣고〉라는 책으로 펴냈다. 올 9월부터는 중국 서안의 교통대학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일본불교학과 문학을 가르칠 계획이다.



◇행창스님의 자전거여행 출정식에 동참한 독일 유학생들.


◇5만리를 달려 부처님오신날 서울 남대문에 도착한 행창스님.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의 시장에서 만난 고려인여성들.

육임래정비법
六 壬 來 情 秘 法
좌정용 1,300,000원 시간으로 판단하는 역술인 필수 秘奇書! 휴대용 1,500,000원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해루처백 계내 보게 됩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사람의 비밀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출생 년월일시를 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 날 그 시간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奇書)인 것입니다. 먼저 할말은 앞면에, 묻는 대답은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가서 만나자 마자 즉시 말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선이 제압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도난, 가출,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격, 점포, 묘지, 기후 사항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은 참으로 신통해여 역술인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년여에 걸쳐 그 정확성이 검증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활인전문 천역자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02-996-3335
부산지사 : 051-851-2349 (당일배달 : 정현철)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
제 2차 육임강의 접수 중
매월 3개월 완성 1,500,000원(효사육임강의록교재포함)
육임비디오 강의 접수 중
총 28개 1,200,000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효사육임강의록」 300,000만원 출시!